

# 공주시, 돌고도는 '괴물 전광판'

## 시민 안전 무시하는 '늑장행정' 공주시장



벼젓이 상업광고 게시물을 돌리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공주시가 '시민'보다 '대통령령' 이  
먼저임을 앞서 반증하듯 기간이 30  
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시민들은 공주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김정섭 시장의 직원에 대  
한 관리 감독 부실, 늑장 대응, 리더

십 부재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  
다는 평가다.

의명을 요구한 공주시청 관계자 A  
는 "시청앞 전광판은 소통담당관실이  
해당 관리 부서로서 앞서 해명자료  
를 보도 한 절차는 해당 광고물을  
규정하기 위한 요식행위이고, 당초  
업자와의 유착 때문이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며 난감해 했다.

관계자 B는 "선거철을 앞두고  
김 시장의 행정처리가 나태해진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  
점에 대해 앞장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도록 해야 하는데, 시장이 선거철  
을 앞두고 직원의 눈치를 보는 것 같  
은 느낌마저 든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정민준 기자

## 충남도, 금속·화학산업 '저탄소 전환'

2045 탄소중립 맞춰 '충남 금속·화학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충남도가 대표적인 탄소 다량 배출  
업종인 금속·화학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견인한다.

도의 '2045 탄소중립' 정책에 발  
맞춰 앞으로 5년 동안 2600억 원  
을 투입, 지속 가능한 금속·화학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  
남 금속·화학산업 육성 기본계획  
(2022~2026)'을 수립, 새해부터 본  
격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금속·화학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 회의와  
포럼, 금속·화학 관련 업체가 밀접  
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 기  
업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전  
은 '금속·화학산업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도약'으로 잡았다.

목표는 '지속 가능한 금속·화학산  
업 생태계 완성'으로 설정했다.  
세부 목표는 △중견기업 7개사 육성

△고용 창출 7000명 △해외 수출 10조  
원 증가 △지식재산 500건 확보 등이다.

4대 추진 전략으로는 △탄소중립  
대응 첨단 소재 성장 기반 구축 △소  
재·부품 자립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기반 조성 △신산업 대응 첨단  
소재 기술 개발 지원 △보건·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른 대응  
책 마련 등을 내놨다.

추진 과제는 △탄소 저감형 첨단금  
속 소재부품 △플라스틱 자원화 △탄

소자원화 소재 고도화 △전략 희소금  
속 △유연 뿌리기술 △항균 및 항바  
이어스 제품 상용화 지원 등 14개다.

투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2677억 7000만 원이다.

각 과제 실현을 위해 도는 연차별  
로 국비를 확보하고, 산업부 공모에  
참여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탄소 업종인 금속·  
화학산업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뒷  
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  
탄소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공  
모 참여를 위한 기획 작업 등에 본격  
착수해 추진과제를 사업화 할 수 있도  
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신 기자

## 충주시, "노인 맞춤 돌봄" 큰 호응

보건복지부 노인정책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충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노인정책분야 지자체 평가'  
을 운영해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  
다.

특히, 로봇 활용한 24시간·실시  
간 스마트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돌봄  
활동이 가능한 비대면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으로 맞춤 돌봄 서  
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펼  
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길형 시장은 "앞으로도 노인이  
살기 좋은 건강 도시, 어르신이 행복  
한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우 기자

## 서산시 천수만, 세계적 철새도래지 '명성'

천수만 겨울 철새 주요 먹이터, 다양한 철새 방문



▲ 지난해 12월 서산 천수만 먹이경작지에 날아든 철새

(제공=서산시)

서산시 천수만이 세계적인 철새도  
래지로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터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독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을 비롯한 다양  
한 철새들이 서산 천수만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하루 3~4만 개체의 철새들이 몰려들  
어 장관을 연출했다.

이는 시가 먹이공급 사업, 애생조류  
총돌방지 스티커 부착, 벗짚준지, 무  
논조성, 밀렵감시 활동 등 애생조류  
보호활동에 총력을 쏟아온 결과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천수만 A  
지구 휴경지 10㏊에 벼를 재배하게  
하고 수확물은 논에 그대로 존치하는  
철새 먹이공급 사업이 특색한 역할을  
했다.

벼와 벗짚을 수확할 수 없는 대신 사  
업비로 보존해줌으로써 일자리 제공  
효과와 휴경지 활용 효과도 얻었다.

겨울철 먹이가 부족해지는 시기, 사  
업을 통해 천수만을 찾은 철새들의 면  
적이 활동 등 겨울나기에 크게 기여했단  
평이다. 그 결과 천수만을 방문한 겨  
울철 철새들의 안정적인 먹이활동 모습  
이 지속 포착됐다.

시는 지난해 부석면 창리, 간월도  
리, 마룡리 등 3개 지역 7필지를 대상  
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성과  
를 분석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먹이사업을 통해 다  
양한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확  
인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철새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천수만의 생태적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

## 아산시, 콘텐츠 산업 2년 연속 'A등급'

아산시가 지원하는 충남콘텐츠기  
업지원센터와 종남글로벌게임센터가  
2년 연속 사업성과 평가 'A등급'을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  
흥 원) 주관 지역 거점형 운영 평가  
에서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A  
등급을 받았으며, 이어 충남글로벌  
게임센터도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이로써 두 개 센터 모두 2년 연속  
A등급의 평가를 달성하게 됐으며,  
2022년에 국비 6억 7000만원을 인센  
티브로 받으며 총 국비 28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공 액셀  
러레이터 등록을 완료하고 체계적  
인 기업 육성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액셀러레이팅 전문기관과 협력해 맞  
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  
비아별 사업고도화 지원을 통해 우수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입주기업 매출 161억  
원을 달성했고 투자유치도 역대 최고  
치인 83억원을 달성했다.

충남글로벌게임센터는 종소 우수  
게임기업 중 4:1의 평균 경쟁률을 통  
해 선발된 게임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개 게임사가 센  
터에 입주했다.

이중 누적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6개사가 포함돼 있으며, 소프트런칭  
이 완료된 2021년 제작 지원 기업은  
상용화 전에 이미 퍼블리싱 10억원  
계약, 투자유치 10억원을 달성해 도  
내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다  
졌다는 평이다.

전병관 시 복지문화국장은 "두 개  
센터의 2년 연속 A등급 달성을 아산  
콘텐츠 산업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콘텐츠 기업을 발굴 지원해 지역의  
콘텐츠사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찬 기자

## 괴산군, '미래농업 육성'에 박차

농업예산 1163억 원 편성 '농업경쟁력 강화'

충북 괴산군이 올해 농업·농촌  
예산에 1163억 원을 편성하고, 변화  
하는 미래환경에 대비해 농업경쟁  
력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농업 예산 1000억 원에  
맞이한 괴산군은 1406억 원(3회 추

경 기준)을 농업·농촌 예산에 편성  
하며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올해 농업·농촌 예산은 전체 본  
예산(5456억 원)의 21%인 1163억  
5756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991  
억 1373만원과 비교해 172억 원

##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문 대통령 신년사에 '입장 발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

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상임  
대표 이상선, 이하 위원회)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  
사에 대한 입장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2  
임인년 새해를 맞아 마지막 신년사  
를 발표하면서 내용 중 우리 관심  
을 가지고 기대해온 균형발전 분야  
는 세 번째 삶의 질 분야에서 "수도  
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  
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  
울산·경남·충남 지역의 협력이 성과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각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운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입장장을 표명했다.

위원회 측은 "그동안 우리는 수  
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준의 특단의 종합대책  
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문재인 정부  
의 임기 중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전 계획이라도 확정·발표해 차  
기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

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일극제제를 다각분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사업을 요구·지지하면서도 가시  
적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0여  
년이 소요되고 수도권집중과 지  
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더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하  
면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수도완성 등의 신속한 결단과  
함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우리사회 전 분야의 과감한 대  
책을 추진하는 통합적 균형발전을  
거듭 촉구해 왔다"고 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  
막 신년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기  
한 선언이나 다행이라고 평가하면  
서 거듭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이  
전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을 강력  
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후보와 정당에게 대선  
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  
정수도 완성 등의 통합적 균형발전  
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채  
택해 서면으로 확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금현 기자

## 예산낭비 인가? 제대로된 해결책인가?

충북도, 코로나19 재택치료 이동형음압기 설치지원

충북도가 코로나19 재택치료의 안  
전과 기족·이웃 세대 간 추가감염 전  
파 차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가정 내  
이동형 음압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중인 재택치료  
는 백신접종에 따른 무증상 확진자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  
대응 역량 소진 문제 해결과 최근 감  
염 폭증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 해결  
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자칫 부주의  
의격 치료로 함께 거주하는 비  
활진 동거인에 대한 추가 감염을 유  
발할 수 있는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충북도는 이러한 재택치료의 문제  
점을 해결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안전  
을 위해 지역 감염병 대응장비 제조사  
인 웃샘(대표이사 이명식)과 협력해 5  
일 도내(청주시) 재택치료 1개 가정에  
전국 최초로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했  
고, 향후 이동형음압기 시범설치 가정  
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택치료 이동형음압기 설치사업은  
재택 내 별도 격리공간에 설치 및 해  
체가 용이한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해  
가정 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고 음  
압기 설치를 통해 정화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이웃  
세대 간 감염도 원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보건소를 비롯한 재택치료 세  
대에 이번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며,  
가정 내 이동형 음압기 설치를 허망하는  
재택치료 세대는 관할 시군 보건소를  
통해 도에 이동형음압기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도는 가정 내 음압시설 설치기능 여  
부와 면역에 취약한 소아, 장애, 60세  
이상 비활진 동거인 수 등을 생활 여  
건을 종합 고려해 지원 기구를 선정  
할 계획이다.

주민 A씨는 "코로나19 올바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2년  
넘게 무엇을 했는가? 근본적인 해결방  
안은 커녕 오로지 하루 확진자가 몇명  
인지에 대해만 보도, 확인, 개인 시기  
기에 비innie된거 아닌가? 묻지 않을수없  
다고 말했다.

의사는 "상식적으로 병원에서 치  
료를 받을 때는 몸이 아파 찾는 것인데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무조건 검사 받  
게하고, 받고나면 확진자가 나오